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11월 5일(목) 제 3431호

전주시, 2027년 국가예산 증액 막판 총력전

조지훈 시장, 여야 의원 잇단 방문
핵심사업 8건 예산 반영·증액 건의
특례시 기준 완화 등 지원 요청
내달 2일까지 국회 상주반 운영



조지훈 시장, 국비 확보 국회 설득 행보

조지훈 전주시장이 4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을 만나 2027년도 국가예산 주요 사업의 증액과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가운데 조지훈 전주시장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주요 간부공무원들은 4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인 국회를 찾아 시정 핵심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연초부터 전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집중해왔다.

이날 조지훈 전주시장은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 등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예결위 소속 의원실과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장수)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 증액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된 전주시 관련 주요 사업은 △지역의 도서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 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경쟁력 있는 초격차 기술 검증과 글로벌 초기단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피지컬AI 풀스택 종합지원체계 구축' △K-Film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서남권 버추얼프로덕션 거점 구축을 위한 '한국 AI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이다.

조 시장은 또,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을),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 이춘석(익산갑), 김진영 민주당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을 면담하고 시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구체적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조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인구 50만 도시)'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제도 개선 및 권역 조정'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유지' 등 7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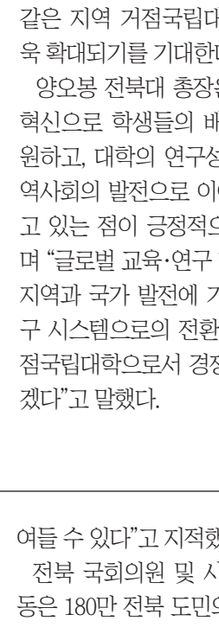
시는 향후 국회 본예산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전주 미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2027년도 사업 예산이 최종 예산안에 차질 없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예산안 확정시까지 수시로 국회 및 기획처 등 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지역 정치권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견고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대, QS 아시아대학평가 5년 연속 거점국립대 3위 수성

종합점수 1.2점 상승한 65.5점 기록
11개 지표 중 8개 지표 전년比 향상
연구 생산성·국제화 경쟁력 강화



양오봉 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7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5년 연속 거점국립대학 3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대학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전북대는 QS와 U.S News 등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들의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수년째 거점국립대학 3위를 유지하며 교육·연구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 QS가 11월 3일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종합점수 65.5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64.3점보다 1.2점 상승한 것. 올해 평가에는 아시아 1,725개 대학, 국내 108개 대학이 참여했다.

QS 아시아대학평가는 학계·기업계 평판도, 교원당 논문 수, 논문당 피인용수, 국제연구협력, 학생당 교원 비율, 외국인 교원·학생 비율 등 11개 지표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국제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북대는 올해 11개 평가지표 가운데 8개 지표에서 전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원당 논문 수, 박사학위 소지 교원, 학생당 교원 비율 등 연구 생산성과 교육여건 관련 지표를 비롯해 국제화 지표에서도 점수가 향상됐다.

연구 부문에서는 교원당 논문 수 점수가 29.5점에서 43.1점으로 13.6점 상승했고, 해당 지표의 아시아 순위도 79계단 올랐다. 박사학위 소지 교원 지표는 85.0점에서 95.0점으로 높아졌으며,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학생당 교원 비율은 95.4점을 기록했다.

국제화 부문에서는 외국인 학생 비율 점수가 47.8점에서 77.1점으로 상승했고, 아시아 순위도 185위에서 142위로 43계단 높아졌다. 해외 파견 교환학생과 국내 초청 교환학생 지표는 각각 99.7점과 97.6점을 받았다.

QS 관계자는 전북대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도 전북대와 같은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AI 기반 교육혁신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진로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며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연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정치권, 새만금국제공항 조속 정상화 촉구

국회의원·사회경제단체 공동성명
"전북 도민 생존권" 사업 재개 요구

전북 정치권 및 사회·경제단체 일동은 오는 11월 18일로 예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의 백년대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열쇠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와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김윤덕 의원 ▲김의겸 의원 ▲박지원 의원 ▲안호영 의원 ▲민주당 박희승 의원 ▲정동영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이사장 정진) ▲(사)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병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 ▲(사)전북발전협의회(회장 김금석) 등 전북 국회의원 및 7개 사회·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4일 "전북 도민에게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이라며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수도권 인구 유출과 청년 이탈이라는 오랜 절망을 끊어내고 전북이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생존의 사다리이자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오랜 시간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그중에서도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이 거대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이후 수년째 계속된 절차적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 서 있는 동안에도 새만금 현장에는 피지컬AI, 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항만·철도·도로에 이어 '하늘길'이 열려야 비로소 기업 투자가 결실을 맺고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국회의원 및 사회·경제단체 일동은 180만 전북 도민의 염원과 시대적 사명을 담아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도민의 염원을 참작하여 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 잔여 행정 절차를 신속·엄정하게 마무리하여 법적·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즉각적인 착공을 추진하여 약속된 개항 기한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전북도, 피지컬AI·로봇 국가거점 조성 '밑그림'

국회서 대토론회…육성 전략 마련
대정부 건의문에 5대 사업 구체화
연구개발·실증·생산 생태계 구축
새만금 로봇·농생명 기반 연계



<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새만금 로봇 투자와 도내 제조·농생명 산업 기반을 결합해 대한민국 피지컬AI·로봇 산업의 국가거점 조성에 본격 나선다.

도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피지컬AI·로봇 글로벌 최강국 전북 대토론회'를 열고,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5대 핵심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동영·안호영·김윤덕·한병도·윤준병·김의겸·이성윤·박희승·박지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피지컬 AI 밸리 및 반도체 소부장 집적지 유치·지원단이 함께했다. 행사에는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내 시군, 대학·연구기관, 유관 협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는 김정호·공승현 KAIST 교수, 박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오양섭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유지연 전북테크노파크 단장이 나서 사업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의 주재로 사업 간 연계 방안과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대정부 건의문에는 5대 핵심사업의 2027년 국가예산 반영과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정치권·시군과 공조해 정부와 국회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 등 물리적 장치와 결합해 현실 세계를 인식·판단하고 직접 행동하는 기술이다. 전북은 상용차·농기계 등 제조업과 농생명 산업이 탄탄해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할 현장이 풍부하다. 여기에 현대차의 새만금 로봇 투자계획과 로봇·부품 위탁생산 기반 구축이 더해지면 로봇 생산부터 현장 활용까지 한곳에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산업 여건 위에 피지컬 AI 연구개발·실증 인프라를 더해, 현장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검증된 기술을 제품 고도화와 양산으로 잇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전북에서 검증한 기술과 운영모델을 국내외로 확산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청사진을 구체화할 5대 핵심사업은 ▲K-HBM-HBF 제품기술 개발센터 ▲피지컬 AI 기반 AAR 국가산업 클러스터 ▲새만금 로봇 팜 팩토리 ▲피지컬 AI 로봇 밸류체인 벤처 지원 ▲피지컬 AI 자율형 통합물류 국가 실증센터 등이다.

사업별로는 차세대 메모리 제품기술 개발, 자율항공로봇 실증·운항 지원, 농업로봇 제작·학습·실증, 로봇 분야 벤처기업 육성, 다중 로봇 협업 물류 기술의 검증·사업화가 추진된다. 도는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묶어 피지컬 AI의 산업화 토대와 활용 시장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의 제조·농생명 현장과 새만금 로봇 투자를 하나로 엮어 기술개발에서 실증, 생산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전북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피지컬 AI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

전북도, 지적재조사 성과 인정…대통령 표창

전국 첫 민·관·공 협력체계 구축
광역단체 최초 사전검토제 도입

전북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적불부합지 해소,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포상에서 지적재조사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K-Geo 페스타'에서 표창을 받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 민·관·공 업무협약 체결과 광역자치단체 최초 사업지구 사전검토제 운영 등 협업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도는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 민간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경계조정과 민원해소, 사업지연 방안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업지구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사업지구 지정 전 경계분쟁 현황과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14개 시·군의 81개 지구, 2만 6,818필지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도내 450개 지구, 24만 8,191필지(133.50㎢)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지적불부합지의 39.6%를 해소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장정철 기자

道, 카본 코리아 2026서 전북 탄소기업 판로 확대

도내 기관·기업 참가 기업관 운영
AI·방산 등 탄소 미래 기술 조명
해외 수출 상담·비즈니스 매칭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탄소소재·부품 산업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6'이 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올해는 'AI와 함께하는 탄소소재의 미래: 우주·항공·방산, 에너지'를 주제로 인공지능(AI)과 탄소소재의 융합을 비롯해 우주·항공·방산,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수요산업과 연계한 탄소소재의 활용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전시장 규모를 기존 3,793㎡에서 7,452㎡로 확대하고, 해외 기업과 글로벌 수요기업의 참여를 늘려 탄소소재에서 최종 제품까지 이어지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탄소소재·응용제품 전시와 국제 콘퍼런스, 수출·사업상담 등이 마련된다. 행사 첫날인 4일에는 개막식과 국내외 전문가 기조강연 등이 진행되며, 행사 기간 탄소복합재 관련 학술 발표와 AI 융합 특별세션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독일·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관을 운영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수출 상담 및 국내외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6개 기관·기업이 참가하며, 이 가운데 9개 기업이 전북기업관을 운영해 탄소소재·부품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기업관을 통해 도내 탄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을 국내외 수요기업 및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신규 거래처 발굴,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탄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고, 기업 간 교류가 실질적인 사업 성과와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06년부터 탄소페스티벌을 개최해 탄소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21년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카본 코리아'를 개최해 국내 탄소산업의 기술교류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민주 친청계 "김민석 정당법 위반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4일 김민석 대표가 전날 의총에서 '전 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세력과 연계됐다'고 비난한 데해 사과한 것과 관련,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비공개 의총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로 끝낼 문제냐"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근거도 없이 우리 당원들을 반명·분열주의·신천지로 몰아세워 당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고, 당원들 사이에는 회복이 어려운 불신과 상처가 남았다"며 "당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에게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정 전 대표 등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없는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한 뒤에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며 사법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성윤 의원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당의혹과 관련,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근거 못 찾았다"며 "피해본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행 정당법 52조에 "①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 · 신분 · 직업 · 재산 · 경력 · 학력 · 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친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비공개 의원총회 사과 직후부터 일제히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당 대표의 눈물 등을 운운하며 당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강변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한마디만 하겠다"며 "어느 날 반명·분열주의자·신천지로 몰린 우리 당의 수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고 직격했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께서 사과 발언을 하셨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다 하지 않았느냐"며 "당이 이 문제로 더욱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결단을 하셨고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며 친청계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규정했다.

/서울=김영묵기자



탄소국가산단 분양률 30% 돌파

CARBON KOREA 참가
산단 21필지 분양 성과 바탕
신규 투자기업 유치 박차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최대 규모의 탄소산업 전문 전시회에 참가해 탄소산단에 입주할 기업유치 활동에 나섰다.

시는 4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CARBON KOREA 2026'에 참가해 탄소국가산단의 투자환경과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국내외 탄소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 13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탄소소재 관련 제품 전시, 기술교류,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탄소산업 유망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신규 투자기업을 발굴할 기회의 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전주시는 4일 'CARBON KOREA 2026'에 참가해 탄소국가산단의 투자환경과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전주시>

시는 이날 그간 교류해 온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 투자 동향과 향후 계획을 확인했다.

우주항공·에너지·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가산단의 조성 현황과 분양 계획, 입지 경쟁력 등을 집중 홍보하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시는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발굴한 투자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상담과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기업별 투자 수요에 맞춘 유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탄소산업 유망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업별 투자 수요에 맞춘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협약과 탄소국가산단 분양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제조시설용지는 지난달 14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21필지가 분양돼 약 30%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2026 제2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

오는 7일 노송광장서 개최
'오감 이색 놀이터' 주제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2026 제2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민장터는 지역 공동체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송광장에서는 '오감 이색 놀이터'를 주제로 판매 장터와 체험장, 놀이, 공연 및 이벤트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풍성한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먼저 판매 장터에서는 14개 부스가 참여해 수공예품과 액세서리, 생활소품 등 공동체 제작 상품 판매를 비롯해, 구움과자와 음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를 선보인다.

체험장에서는 총 9개 부스가 참여해 △한지 꽃신 만들기 △꽃 키링 만들기 △볼펜 꾸미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흙으로 내 얼굴 표현하기,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밴드, 카혼, 난타, 비눗방울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장터가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골목상권 드림축제로 지역 상권 활력!

7일 서곡 드림축제 시작
4개 골목상권서 순차 개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가 올해도 전주시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곡지구와 인후동, 평화동, 서부신시가지 등 4곳에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제6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골목상권의 특색을 알리고 시민들의 방문과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는 서곡과 인후동, 평화동, 서부신시가지 등 4개 골목상권이 참여해 각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드림축제는 각 상인회가 중심이 돼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상권별 할인 행사와 서비스 증정 등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골목상권을 널리 알리고 상권별 특색을 살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축제는 오는 7일 오후 4시 서중공원 앞 도로에서 열리는 서곡 드림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어 오는 14일 낮 12시부터 인후동 동진회 일원에서 인후동 드림축제가 진행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평화동 완산중학교에서 평화동 드림축제가 펼쳐진다.

또, 오는 12월 4일에는 오후 5시30분 서부신시가지 GT커피 일원에서 마지막 드림축제가 열린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골목상권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와 상품을 홍보하고 신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전주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각 상권만의 매력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라며 "시민들이 지역 골목상권에 관심을 갖고 방문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수돗물 필터 변색 민원에 긴급 대응

원인 파악과 조치에 총력다해
수자원공사 조속한 조치 권고
시 배수지 수질검사 매일 실시

최근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와 금암동을 비롯한 전주권(전주·완주·군산·익산)에서 수도꼭지 및 샤워기 필터 변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수돗물 공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고산정수장)에 조속한 조치를 취하길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한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전주지역 6개 배수지와 일부 수용가의 물을 채수해 전북대 물환경연구센터에 수질검사를 긴급 의뢰했다.

4일 시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전주시 수돗물의 원수인 용담댐(호)는 최근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39.2%(11.3기준)까지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 저수율인 84.1%와 비교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취수구 위치가 하층부로 내려가며 지각(토양)에 있던 망간이 유입돼 필터변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민원이 발생한 지난 2일 전주시로부터 민원 현황을 인지한 후 정수장 망간의 농도가 0.01ppm으로 수질기준인 0.05ppm을 넘지 않았음을 안내했으며, 전주시의 지속적인 조치 요구로 이날 원수 내 망간을 제거하기 위해 중염소 농도를 증가했다.

또, 취수원 수심별 채수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검사 결과를 전주시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천마배수지와 효자배수지의 수질을 매일 채수해 검사 의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필터 변색의 원인인 망간은 건강상 유해물질이 아닌 심미적 영향 물질이며, 자연적으로 토양에 존재하는 물질로 식수로 음용 및 사용 시 건강에 무해한 물질"이라며 "시민들께서 빠르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하반기 청원 친절교육 실시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전주시가 시민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친절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4일 시청 별관 강당에서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을 직접 응대하는 대민업무 담당 직원과 신규임용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청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직접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바라는 대민업무 담당 직원들의 목소리와 최근 늘고 있는 특이민원 응대 교육 수요를 반영해 마련,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범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시민 응대의 기본자세와 설명 요령 △민원 유형별 응대 방법 △사례별 민원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 △ 응대 과정에서의 마인드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이 강사는 민원 현장에서 직접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방법부터 민원 종결까지 민원처리 전반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조미정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음 마주하는 것이 직원의 응대인 만큼, 친절한 응대가 곧 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며 "이번 교육에서 익힌 응대 요령을 민원 현장에 적용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인 '레벨업, ITQ'와 '라떼는 말이야'를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레벨업, ITQ'는 정보기술자격(ITQ)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등용문아카데미회계컴퓨터아트학원과 연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0회, 60시간에 걸쳐 운영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교 밖 청소년 10명이 참여해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라떼는 말이야'는 바리스타 2·3급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북커피바리스타학원과 연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31시간에 걸쳐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8명 전원이 3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 중 14명은 2급 자격증도 함께 취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며 "앞으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소방, 신속동료구조 합동 훈련

고립 소방대원 구조 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재난현장에서 고립된 소방대원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대원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신속동료구조(RIT) 합동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와 무주·진안·장수소방서 구조대가 참여했으며,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고립되거나 탈출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실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립된 동료를 신속하게 찾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RIT)와 위험상황에서 대원 스스로 탈출하는 자가생존훈련에 중점을 뒀다.

또한 훈련 종료 후에는 참여 대원들이 구조 기법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합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졌다.

/장정철 기자



전주지역 의료인들, 위기청년 지원 후원금 기탁

전주지역 의료인들이 지역사회 위기청년들의 자립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시 여의사회와 (사)이웃사랑의사회는 4일 전주시를 찾아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미애 전주시 여의사회 회장과 이상권 (사)이웃사랑의사회 이사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저마다 다르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후원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혜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백화점 수수료 26.1%… 입점 中企 부담 여전

중기중앙회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상생 협력 확대해야"

온라인 쇼핑 확대와 내수 부진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높은 판매수수료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납품대금 정산 지연 등 불공정거래 사례도 확인돼 거래조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6.1%, 대형마트 20.2%로 집계됐다.

백화점별 최고 수수료율은 현대백화점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AK플라자와 갤러리아 36.0%, 신세계 35.0%, 롯데 33.0% 순이었다.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26.0%, 홈플러스 25.0%,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각각 20.0%였다.

직매입 거래의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 20.6%, 대형마트 21.0%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도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백화점 21.0%, 대형마트 37.0%에 달했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 의류업체의 53.1%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대형마트별 매출 감소 업체 비율은 홈플러스가 63.0%로 가장 높았고 롯데마트 31.0%, 이마트 28.0%, 하나로마트 26.0% 순이었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백화점의 경우 없었으나 대형마트는 5.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0%는 홈플러스와의 납품대금 정산 지연 문제를 경험한 업체였다.

납품대금 지급 소요 기간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21~30일이 가장 많았지만 일부 직매입 업체는 40일을 초과하기도 했다.

거래 여건에 대한 불만도 확인됐다.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11.8%는 입점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3.2%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판매수수료율이나 판매장려금 비율이 증가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사업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백화점 36.2%, 대형마트 29.5%에 그쳤다.

가장 희망하는 상생협력 분야로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43.0%,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37.5%가 수수료 인하를 선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형 유통망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 전북지역 농식품·생활소비재 중소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출 감소와 유통비용 부담이 겹칠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은 여전하다"며 "입점 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와 납품대금 지급기한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농작물 수확철 휴일근무

매주 토요일 정상 근무

김제시는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분소에서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옥산동)와 동부(봉남), 서부(만경), 북부(공덕) 3개 분소에 임대농기계 68종 1,630대를 보유해 운영 중으로, 농산물 수확에 필요한 임대용 농기계 곡물탈곡기, 콩정선기, 땅속작물수확기 등을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해 사용할 수 있다.

토요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임대 농기계 출고 전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한 후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들에게는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를 통해 임대농기계를 작업 현장까지 전달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주말근무를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며, 무엇보다도 농업기계는 안전이 중요하므로 장시간 농작업 시 꼭 휴식을 취하시고,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시, 청년 식품 창업기업 판로 확대 지원

'푸드위크 코리아' 참가 청년 기업 제품 선봬

익산시가 지역 청년 식품 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청년 식품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푸드위크 코리아(제21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는 코엑스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개최하는 종합식품전시회로 30개국에서 1,000개 기업이 참여해 약 1,800개 부스를 운영한다.

시는 국내외 식품기업과 바이어, 유통관계자들이 찾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여 기업의 제품 홍보와 신규 거래처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 기간 익산시 부스에서는 △소이온 △솜리에프앤비 △크리미웨이 △모닝팜 등 지역 청년 식품 창업기업 4곳이 참여해 각 기업의 제품을 선보인다.

소이온은 국내산 콩으로 만든 페스토 등을, 솜리에프앤비는 검은깨 닭껍질튀김을 소개한다. 크리미웨이는 프리미엄 곡물 단백질 셰이크를, 모닝팜은 서리태 가루와 볶은서리태 등을 선보인다.

이번 참가는 익산시가 추진하는 애그리푸드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실제 창업기업 지원으로 연결해 의미를 더한다.

시는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크립톤과 '익산시 애그리푸드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크립톤, ㈜라이스밸류, ㈜에스텍바이오와 '애그리푸드테크 창업도시 익산-유망기업 투자유치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익산시>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 창업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시회 참가부터 사후 상담까지 지원하고, 청년 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외협력팀>

제2기 여성농어업인특위 출범

정책참여·돌봄 지원 강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농산어촌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된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경제적 권한 강화와 농번기 돌봄 공백 해소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달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2기 위원 위촉과 정책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2기 여성특위는 정영이 특위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7년 9월 22일까지다.

여성특위는 제1기 활동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와 권역별 포럼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지역 의사결정 참여 확대, 성평등 교육 개선,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정책 이행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과 농산어촌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지원방안 등 2건의 정책연구 추진상황이 논의됐다.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업·어업·임업 분야 여성들의 정책 참여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지자체 조례와 전담인력, 정책협의체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역량이 실제 정책 제안과 의사결정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며 남성 지역 지도자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을 강조했다.

농산어촌의 돌봄 공백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농산어촌의 가사·가족돌봄 부담과 공동체 서비스 운영실태를 설명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준비와 이동, 조정 업무까지 인력 지원과 보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른 새벽 시작되는 농작업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불일치, 농번기 대체인력 부족 등 농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성에게 집중된 무급 돌봄노동을 줄이기 위해 남성의 역할 분담과 마을 공동급식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영이 여성특위장은 "변화된 농산어촌 여건에 맞춰 여성농업인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며 "생활돌봄 연구가 통합돌봄 관련 논의와 연계돼 현장 사업의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 위원장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려면 생산수단 소유와 소득 등 경제적 기반, 공동경영주의 실질적인 권한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남성과 지역 지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특위는 오는 12월 정책연구 최종보고에 앞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와 정책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에 'JB희망의 공부방 제246호' 개소

아동 학습권리 보장 건강한 성장 지원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과 함께 4일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최영애)에서 아동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JB희망의 공부방 제246호'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해 아동들의 학습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은행은 1,3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센터 이용 아동 33명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책상, 의자, 책장, 진열장, 화이트보드 등을 지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북은행 최종구 부행장, 박춘기 수송지점장, 이승훈 군산시청지점장을 비롯해 군산시 배숙진 복지교육국장, 김종훈 아동정책과장, 강영란 드림스타트계장, 최영애 센터장 등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시설을 둘러보고 아동들을 격려했다.

최종구 전북은행 부행장은 "아이들이 더욱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숙진 군산시 복지교육국장은 "지역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신 전북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산시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명절 및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을 비롯해 보건위생용품 지원, 계절별 키트 지원, 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서비스품질 향상 나서

'QI경진대회' 성료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건협)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화상시스템을 통해 '2026년 협회 품질개선(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는 업무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검진 분야 중심에서 검진·고객관리·행정·전산 등 협회 전 분야로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무 현장의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중앙검사본부가 참여해 업무 특성을 반영한 품질개선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 심사는 주제 선정의 적절성, 문제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의 실행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사전평가와 현장발표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지부가 대상을 수상했고, 시상은 오는 11월 6일(금)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협 강위중 사무총장은 "바쁜 업무 속에서 매년 지부별로 주제를 선정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협회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QI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건협은 이번 대회에서 공유한 우수 사례를 업무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별 개선 활동과 함께 여러 부서가 연계된 업무 과정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부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사진=한국건강관리협회>

한편, 1964년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가건강검진과 맞춤형 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교육청, 공립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9~12일까지 신청 접수
역량 중심 균형 선발로 진로교육 강화


천호성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2027년 공립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20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내년 3월 1일 기준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 소지자(또는 취득 예정자)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의 1급 정교사 중 전과 후 10년 이상 재직 가능한 교사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과 수업 안정성과 전문적인 진로 교육의 조화를 위해 지원자의 임용 교과를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또 1차 서류평가와 2차 역량평가를 거쳐 학교 현장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교원을 뽑을 방침이다.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이달 27일 발표되며, 선발된 교사들은 내년 3월 1일 자로 도내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도를 전담하게 된다.

천호성 교육감은 "공교육의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효과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역량 있는 교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김소연 박사과정생, 응용곤충학회 최우수상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훈증기술 연구 성과 발표


김소연 박사과정생

전북대학교 김소연 박사과정생(농화학과·지도교수 박민구)이 목재 해충 검역 소독을 위한 대체 훈증기술 연구로 한국응용곤충학회 2026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박사과정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목재 해충의 검역처리를 위한 대체 훈증전략 평가'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출입 목재 검역에 널리 쓰이지만 오존층 파괴와 인체 유해성 문제가 지적되는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할 소독기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박사과정생은 주요 목재 해충을 대상으로 설퍼릴플루오라이드, 에틸포메이트, 에탄디니트릴 등을 활용한 대체 훈증처리를 연구했다.

특히 약제별 특성을 상호 보완하는 병용처리에 중점을 두고, 처리 온도와 목재 내부 침투성 등을 검토해 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박사과정생은 "앞으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증과 규모 확대 시험을 통해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 처리기준 마련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김명관 고택 체험 '호응'

머물고 배우고
쉬어가는 '99칸집'


<사진=정읍시>

정읍시가 김명관 고택에서 1박 2일 전통문화 체험과 예약 없이 즐기는 탐험 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정읍 김명관 고택, 구관이 명관이네'는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혜윰문화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이다. 전통문화 체험과 휴식, 공연, 주민 참여 행사를 함께 마련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의 유일한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김명관 고택은 조선 정조 때 지어진 집으로, '99칸집'으로 알려져 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터에 자리한 고택의 공간과 이야기가 다양한 체험의 바탕이 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도깨비의 일곱 가지 암호, 99칸의 비밀'은 고택을 찾은 누구나 사전 예약이나 참가비 없이 즐길 수 있는 탐험 놀이다. 관람객은 고택에 사는 도깨비가 남긴 단서를 따라 일곱 가지 암호를 푼다. 고택 곳곳을 둘러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의 공간 구성과 옛 생활 모습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숙박형 체험인 '타임 인 조선, 고택의 노비와 양반이 되다'에서는 참가자들이 1박 2일 동안 조선시대 노비 역할을 맡아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양반이 되는 과정을 체험한다. 또 다른 1박 2일 체험인 '고캉스, 안 해본 사람 누구?'는 고택에서 여유롭게 쉬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생 단체와 외국인을 위한 'K-장인 내손으로 전통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와 함께 장구를 직접 만든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공동마을, 명관이네 잔칫날'에서는 판소리 등 전통공연이 펼쳐졌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고려해 만든 약선 요리를 대접하면서 고택과 마을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돼 김명관 고택을 활용한 체험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정읍에 거주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직접 참여와 쌍화차 등 지역문화 체험으로 정읍의 특색을 살렸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AI 인력 양성 교육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대전환, AI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AI)을 이해하고 실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의 수준에 따라 코딩이 필요 없는 비코딩 방식의 '기초(Basic)' 과정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과 협력한 '중급(Associate)'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교육과 연계된 KT 개발·한국경제신문 주관의 AI 활용능력 평가시험 'AICE' 시험은 이날 교내 스타센터에서 치러진다.

비전공자부터 전공자까지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AI 역량을 키우고 관련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홍용 센터장은 "AI 활용 역량은 이제 다양한 직무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라며 "청년들이 전공의 경계를 넘어 미래 산업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부안군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 공연

세대·문화 화합의 무대



<사진=부안군>

부안군은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꿈의예술단 플러스 시범사업으로 '그래도 꿈은 흐른다 A 플러스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를 주제로 꿈의 오케스트라 부안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부안군민 성인 오케스트라, 피아노 협연자 8명, 다문화가족 합창단이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무대다.

공연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된다.

'골든', '단존', '나팔수의 휴일' 등 다채로운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풍성한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피아노 8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협연 무대가 펼쳐진다.

'헝가리안 댄스'와 '라데츠키 행진곡'을 통해 여러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하모니를 선보인다.

아티스트 인순이와 오케스트라, 다문화가족 합창단이 함께하는 협연 무대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담은 '거위의 꿈'과 '그래도 꿈은 흐른다'를 함께 선보이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을 관객들과 나눌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권은 공연 당일인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홀에서 배부한다.

관람권은 1인 2매까지 부안군민 한정(신분증 지참)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고비샅샅'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내 8개 시군에서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전북 고비샅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에는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정읍, 진안에서 공연과 전시, 영화 상영, 체험 등 총 17회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재단은 학교와 복지시설, 마을 거점 공간 등 도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을 찾아 문화예술을 즐기고 따뜻한 만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4일에는 △고창 강호항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예술이 가찹네' △김제 백년행복백구복지센터에서 공예체험과 싱잉볼 프로그램 '전북, 고비샅샅 김제' 등이 열렸다.

오는 7일에는 순창 강천산 병풍폭포에서 밴드 공연과 악기 연주, 성악 등으로 구성한 '11월 문화산책'을 진행해 가을 풍경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간을 선사한다.

18일에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하우스콘서트 '어울림: 고창 예술인 동행' △김제 공덕두루누리활력센터에서 공예체험과 싱잉볼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정읍 새암아트브리즈에서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정읍의 가을 미술전&사진전'을 개최해 가을을 주제로 한 지역 미술 작가와 사진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24일에는 김제 백산누리센터에서 지역특화체험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다.

26일에는 무주읍에서 영화 상영과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한 '보고 만드는 모두의 문화요일'을 운영하고, 부안 동진초등학교에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늦가을에도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만나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매력이 도민이 체감하는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jbct.or.kr)과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익산시청에 피어난 배움의 결실… 평생교육 성과 한자리에

익산시가 시민들이 배움을 통해 쌓아온 성과를 작품과 공연으로 선보이며 평생학습의 즐거움과 가치를 나눈다.

익산시는 오는 6일까지 시청 지하 1층 로비와 다목적홀에서 '2026년 익산시 평생교육 성과공유를 위한 배움 갤러리 & 피어나다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관과 우리동네 늘배움터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익힌 솜씨와 배움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배움 갤러리'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캘리그라피와 어반드로잉, 가죽공예, 코바늘, 프랑스 자수, 규방공예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190점과 문해교육 시화 작품 60점 등 총 250점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고령 학습자들이 한글을 익히며 직접 써 내려간 시화와 글짓기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글을 배우며 생각과 경험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배움이 일상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시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역서점 인증제' 참여 서점 모집… 16~20일까지

군산시립도서관이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2026년 군산시 지역서점 인증제' 참여 서점을 모집한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관내 서점 중 일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한 곳을 공식 인증해, 공공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형 유통망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서점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증을 받은 서점은 향후 군산시립도서관의 도서 구매 대상이 되며, 지역서점 인증 요건이 포함된 유관기관의 도서 구매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매장을 두고 영업 중인 서점이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평가한 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점은 모집 기간 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산시립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kjchul52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인증 요건과 제출 서식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 내 '인증서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장배 전북도 정대항 궁도대회, 성황리 개최

정읍 필야정(사두 곽창원)이 정읍시장배 궁도대회에서 7인조와 5인조 단체전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0월 31일 필야정에서 열린 '2026 정읍시장배 전북특별자치도 정대항 궁도대회'에는 호남칠정 소속 궁도인 146명이 참가했다.

참가 단체는 강경 덕유정과 익산 건덕정, 군산 진남정, 익산 송백정, 김제 홍심정, 부안 심고정, 필야정 등 7개 정이다.

대표 종목인 7인조 단체전에서는 심고정이 우승했고, 필야정이 준우승, 송백정이 3위를 기록했다.

5인조 단체전에서는 덕유정이 우승을 차지했다. 필야정은 이 종목에서도 준우승에 올랐으며, 심고정과 건덕정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노년부 홍심정 권오종, 장년부 건덕정 김영순, 여자부 송백정 진소영 접장이 각각 우승했다.

제169회인 이번 대회는 전통 활쏘기 문화의 계승과 역사적 기록 보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정읍의 전통 궁도문화와 지역 문화유산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통합돌봄 체계 촘촘히"

지역특화·시민체감 맞춤형 서비스로 돌봄 공백 최소화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본사업 시행 이후 27개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정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돌봄 대상자 806명을 발굴하고 총 4,11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잠재적 대상자 1,108명에 대한 조사를 100%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수요 발굴에 힘을 쏟았다.

또한 시는 지역 여건과 시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반영한 '자체특화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국가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맞춤형 방문운동, 영양식사 및 건강돌봄 반찬 지원, 대청소·방역,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침구세탁 등 돌봄 수요를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수혜 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심한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려웠던 40대 여성 A씨는 방문운동과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며 활력을 되찾았다.

A씨의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딸의 머리를 잘라줄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는데,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예쁘게 손질해 주니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오랜 기간 간병을 도맡아 온 고령의 어머니 역시 이번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게 되면서, 돌봄 부담을 덜고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돌봄 안전망이 형성됐다.

아울러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 내외 20개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퇴원 후 임시 주거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군산형 중간집(단기지원주택) '군산愛이음주택'을 추진하는 등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분야를 보완하고,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물론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자율비행로봇〉

익산시, 5천억 규모 AAR 클러스터 시동

국회 대토론회 참석 현안 국비 건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향한 최정호 익산시장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는 길목에서 엿새 만에 다시 여의도를 찾아 미래 신산업 구상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쳤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피지컬 AI·로봇 글로벌 최강국 전북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자율비행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산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인공지능과 미래항공산업을 접목한 지역 연계 발전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화면 속 인공지능을 넘어 실제 물리적 기기를 자율 제어하는 '피지컬 AI' 기술과 미래 자율항공 산업의 융합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며 익산의 새로운 도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소개된 익산의 새로운 성장 모델 '피지컬 AI 기반 자율비행로봇(AAR) 국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30억 원 규모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을 구상하는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 자율항공기와 핵심 부품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신뢰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항로를 판단하고 비행하는 'AI 자율운항관리 시스템'과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기술을 완비한다.

여기에 첨단 정비·지원(MRO) 인프라와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국제 표준화 및 공인 인증 체계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항공 전주기 거점을 익산에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기존 지역 산업에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실(익산갑)과 한병도 원내대표실(익산을)을 거점으로 전북 연고 의원실을 잇달아 찾아 현안별 추진 시급성을 설명했다. 특히 직전 토론회에서 공개된 피지컬 AI 기반 AAR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반영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미래 신산업 핵심 사업은 '자율비행로봇(AAR) 국가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팩토리 구축 △그린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등이다. 시는 앞으로 11월 한 달간 이어지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감액·증액 심사 일정에 맞춰 국회 상주반을 가동하고, 전북자치도 및 정치권과 촘촘한 공조 체제를 가동해 예산 삭감 방어와 추가 증액에 모든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고부관아터 국가사적 지정 '초읽기'

제3차 학술토론회 성료 보존·복원 계획 확정

정읍시가 고부관아터의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를 내년 1월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4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고부관아터 사적 지정을 위한 제3차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인 고부관아터의 단계별 보존·정비·복원 계획도 확정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신병욱 전북대학교 연구교수는 '고부관아 복원의 방향'을 통해 문헌과 현장 유구에 근거한 단계적 복원 기준을 제시했다.

박정민 전북대 교수는 '고부관아터 사적 지정과 복원 이후 활용 방안'을,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는 '고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역사문화자원의 연계·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유산청 사적분과 위원인 이재운 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장, 남해경 전북대 명예교수,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적 구역 획정과 복원의 타당성, 국가사적 승격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부관아터의 역사적 진정성과 실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보존·복원 방향을 구체화했다. 축적된 성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12월까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검토·보완을 거쳐 제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지정 신청서를 완성하고, 국가사적 승격으로 동학농민혁명 시작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북부권 수돗물 '콸콸'… 갈증 푼다

왕궁저수지 일원 1억 투입 안정적 급수 기반 마련

그동안 여름철이나 주말마다 물 사용량이 몰려 수돗물 공급에 애를 먹었던 익산 북부권 주민들의 고질적인 저수압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경화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산면 등 북부권 일원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한 '왕궁저수지 일원 가압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왕궁면 왕궁저수지 일원에 수돗물 압력을 높이는 가압장 설치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산면을 비롯한 북부권 고지대 마을과 물을 많이 쓰는 대형 수용가 인근 지역은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주말과 여름철마다 수압이 뚝 떨어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급수 환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익산시는 현장 수압 측정과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정밀 데이터 분석을 벌여 수압 저하의 근본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왕궁과 금마 배수지의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급수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거점 가압장을 신설해 전체 급수계통을 효율화하는 종합 개선책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수압 저하가 잦았던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25마력 고효율 가압펌프 4대와 필수 부대시설을 구축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급수계통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돼 배수지별 용수 공급이 한결 원활해진다. 김경화 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이번 가압장 설치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급수 취약지역을 빈틈없이 발굴하고 시설을 지속해서 개선해, 익산 시민 누구나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상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 "산불 대응 최선"

센터 운영현황 점검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이 3일 함열읍에 위치한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현장 대응 태세를 살피고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산불진화대원들의 진화 시범을 직접 참관했다. 김 의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원 여러분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출동 및 진화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 소철환 익산소방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관기관 간 산불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충영 의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익산시의회 역시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예방 철저히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필요

군산시보건소는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9월 11일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는 7월 7일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해제되며 일상적인 감시체계로 전환됐으나, 최근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산시보건소는 △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실내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두 백신은 지정의료기관에서 동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 및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군산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악취 관리 빈틈없이"

24시간 상황실 운영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해 총 1,33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악취상황실에는 전문인력 4명이 투입돼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중단 없이 감시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악취 시료 163건을 포집했으며, 이 가운데 59건은 야간에 이뤄졌다.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개 사업장에는 조업정지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유도했다.

처리한 악취 민원 1,33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축산 악취 940건(70%), 산업단지 악취 203건(15%), 기타 19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역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악취 발생원을 추정하고, 현장에 출동해 발생 원인을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시는 올해 접수된 악취 민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악취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 민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절기에도 악취상황실 운영을 이어간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악취 감시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1일 마을세무사 상담소 진행

정읍시가 오는 11일 샘고을시장 고객쉼터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소'에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신고와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관한 문의를 상담한다. 절세 방법과 세무관리 요령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소는 바쁜 생업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개별 세무 고민을 듣고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영세사업자와 농촌 주민,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활용해 시민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지역인재 위한 나눔 확산 2(題)

한돈·한우協 고창군지부, 1천만원 기탁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은 지난 2일 (사)대한한돈협회 고창지부(지부장 이동완)와 전국한우협회 고창군지부(지부장 김문석)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재)고창군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 축산업을 이끌어가는 두 단체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완 대한한돈협회 고창지부장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문석 전국한우협회 고창군지부장은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한한돈협회 고창지부와 전국한우협회 고창군지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인재를 키우는 일이 곧 고창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만큼, 기탁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을 통해 교육지원과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300만원 전달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부선)는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가 올해 벚꽃축제, 모양성제, 전북 사랑나눔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탰다.

김부선 회장은 "회원들이 지역축제에 참여해 함께 땀 흘리며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탁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축제에서 얻은 소중한 수익금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탁해 주신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정성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이번 기탁은 학생들에게 큰 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기탁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타운홀 미팅 군민 참여단 모집

30명 내외… 13일 열려

부안군은 민선 9기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정책을 군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선 9기 부안군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군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이번 타운홀 미팅은 모집된 참여단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민선 9기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주요 정책 토론과 질의응답 등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행사는 JTV 전주방송에서 녹화 후 추후 방영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부안군정 발전과 지역의 미래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newlife03@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www.buan.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상하면 지사협 출산가정에 양육 물품 지원

고창군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광월, 민간위원장 전봉식)는 최근 '아기천사 탄생 축하사업'으로 관내 출산가정에 고창사랑상품권 20만원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둘째 아이를 맞이한 다문화가정으로, 협의체 위원들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새 가족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아기천사 탄생 축하사업'은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봉식 민간위원장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광월 상하면장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응원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총력'

여성농업인, 퍼포먼스 릴레이 동참

부안군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새만금 부안 유치를 위한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퍼포먼스 릴레이 참여가 이어지며 범군민 유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부안군연합회(회장 김옥경)는 4일 계화종합복지센터에서 회원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연합회 한마음대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새만금 부안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퍼포먼스는 부안군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본사 유치에 여성농업인들도 뜻을 함께하고자 마련됐다.


권익현 부안군수

이날 참석자들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반드시 새만금 부안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통합본사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표현하며 범군민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탰다. 부안군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통해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해상풍력·수소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연계하고, 에너지 공기업과 연구·산업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과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각 계각층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마음대회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공 여성농업인 시상과 장학금 전달, 회원 화합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옥경 회장은 "여성농업인들이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에서 부안의 미래를 위한 통합본사 유치에도 뜻을 모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여성농업인들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자발적인 참여가 군민 전체의 관심과 공감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7일 '선사문화축제' 개최

고인돌유적 가치 홍보

고창군이 오는 7일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야외공간에서 (재)문화유산마을이 운영하는 '고창 고인돌 마을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접하고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마을잔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현장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선사도구 제작 시연과 재현 유물 전시·체험을 비롯해 선사 의상 체험, 토기 만들기, 고인돌 석고방향제 만들기, 옥가락지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선사 그림그리기와 악기 체험, 갈돌·갈판으로 곡물 가루내기, 선사시대 사냥 체험 등을 통해 선사인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야외화덕에서는 고기 굽기와 토기 굽기 시연이 진행되며, 밤과 고구마 등 가을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행사 참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문화유산마을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부안군 지방정원 지정 3주년을 기념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노을빛 지방정원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어린이 100여명과 가족들이 참여해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창의력과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자연과 정원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가족이 함께 정원을 거닐며 자연을 체험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지방정원 지정 3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그림그리기 활동, 작품 심사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 등 총 55명에게 시상해 참가 어린이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창작 활동을 격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안군 지방정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월촌농공단지 현판 수여식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지원 방안 모색

김제시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2026년 제2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 공공투자분야에서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함에 따라 4일 김제 월촌농공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에서 현판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공장 시설 시찰을 시작으로,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한 뒤 현판수여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월촌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투자분야(기업 직접지원) 최우수상인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월촌농공단지 내 유휴공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연면적 2,209㎡ 규모의 공장 5개 동과 관리동 1개 동을 조성했다. 2024년 준공 이후 6개 기업이 입주해 100% 입주를 완료하는 등 노후 농공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휴 산업시설의 재생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장관상 수상과 현판수여식은 시와 관계기관, 입주기업이 함께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월촌농공단지가 지역경제의 활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곰소 풀치 활용 시제품 개발

상품화 가능성 모색

부안군은 지난 3일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유주방에서 곰소지역 수산특산물인 풀치를 활용한 조림소스(양념·간장) 시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이전과 시식·품평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풀치소스 시제품 개발과 기술이전은 부안 곰소지역의 수산물 풀치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지역 소공인들에게 소스 제조기술을 보급해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발된 풀치조림 소스는 매콤한 맛을 살린 양념 베이스와 깊은 감칠맛과 담백한 맛을 강조한 간장 베이스 2종 소스로, 풀치 특유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누구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날 참석한 곰소어촌계와 지역 소공인들은 개발된 풀치조림 소스의 제조공정과 포장, 라벨작업까지 하나하나 기술을 공유하고, 직접 조리한 음식을 맛보며 두 가지 소스의 맛과 특성을 비교하고 실제 조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제품의 시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날 참여한 곰소 지역주민은 "이번 시제품 개발과 기술이전을 계기로 곰소 풀치가 전국의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부안군 특화소스 개발과 연계해 부안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홀몸어르신 70세대에 '희망꾸러미'전달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인)가 홀몸어르신 70세대를 대상으로 생필품이 담긴 '희망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 속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강인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백구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공유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의회, 벤치마킹 위해 방문

고창군이 지난 2일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영종)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3명이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과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기금사업 현장 견학을 통해 제도 운영 성과와 지역 발전 기여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의회 방문단은 먼저 고향사랑기금 제1호 사업인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해 기금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봤다.

이어 신재효판소리박물관 LED 월 전광판을 견학하며 고향사랑기금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정신과 얼을 살리는 데 활용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농산물은 물론 특색 있는 가공식품과 다양한 체험상품 등을 폭넓게 발굴·제공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소중한 정신과 문화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키우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금사업과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성장여행' 펼쳐

사회성·공동체 의식 고취

김제시는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경상북도 경주에서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관하에 '함께 떠나는 성장여행'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경주 유명 유적지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를 견학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단체 활동을 경험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성장여행 행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새로운 경험을 쌓는 값진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교육혁신선도지역 나란히 선정 2(題)

완주군, 산업 연계 교육혁신 지역인재 육성

완주군이 교육부 주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역 교육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3일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30개 신청 지역 가운데 43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완주군을 비롯해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등이 선정됐다. 특히 완주군은 2유형에 선정돼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2027년부터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산업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특히 수소, 자동차·기계 등 완주군의 산업 기반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를 교육과 연계해 지역 인재 양성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전문성과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지역 대학, 산업체,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최초 3년간 사업을 추진한 뒤 단계평가를 거쳐 2년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촌유학·돌봄 묶어 교육환경 혁신

순창군이 순창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교육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1개 대상 지역 중 130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지역이 선정됐다. 순창군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에 선정돼 우선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2년간 추가 지원된다.

이번 선정은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지역사회와 함께 농촌유학, 지역특화 교육, 교육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교육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순창형 학교 혁신모델 구축 △돌봄·방과후 통합지원체계 정비 △지역특화 교육 활성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통합미래학교 구축, 온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우리마을 선생님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농촌유학의 정주형 모델 전환, 장류·발효바이오 연계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인석 순창교육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순창형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농어촌민박 진입 문턱 낮추고 안전 강화

'도농교류법' 개정 발맞춰 대책 가동
1년 이상 방치 빈집 활용 민박 허용

남원시는 농어촌민박의 법적 근거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로 이관 및 개정됨에 따라, 지역 사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변동사항을 홍보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농어촌민박 운영 시 필수적이었던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된다. 남원시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이나 임차인도 보다 쉽게 민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이 신설돼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을 활용할 경우 거주 의무 없이 민박 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인뿐만 아니라 남원시 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객실 수와 주택 규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며,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식사 범위도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된다.

규제 완화와 함께 이용객 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기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며 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교육 및 전기·가스 점검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장과 online 플랫폼(홈페이지, SNS 등)에 정식 등록 표시 및 요금표를 필수로 게시해야 한다.

기존 신고를 마친 남원시 내 민박 사업자는 별도의 재등록 절차 없이 새로운 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로 자동 인정된다.

시는 상위법령 개정에 대응해 관내 농촌 민박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원시 우수민박협의회 조직화를 지원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민박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 총력 배수진'

국회 방문 의원·예결위 잇단 면담
용진 원상운교차로 개선 등 건의

완주군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군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지휘부 방문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군수 유희태)은 4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및 주요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연이어 면담하고,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주요 3개 핵심 사업의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역구 안호영 의원(기후환노위), 박지원 의원(예결위원), 윤준병 도당위원장(농해수위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완주군 발전과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초당적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군이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한 핵심 사업은 총 3건(총사업비 640억 원 규모)이다.

먼저 무궁화 품종·재배·활용 기술 전담 연구기관인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설립'(총사업비 250억 원)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인 '사회연대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총사업비 350억 원)과 관련해, 사회적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시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두 사업은 완주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반영


<사진=완주군>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국도 17호선 용진 원상운교차로 개선'(총사업비 40억 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이를 위해 주민 통행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부체도로 확장 및 오르막차로 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공사비 10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역문제 해결 청년 로컬 창업 스쿨 운영

지역 문제 발굴해 창업 아이템화
청년 최대 15명 모집 교육비 무료

순창군은 지역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청년 교육 '로컬 비즈니스 모델 스쿨 in 순창'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순창의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비즈니스 모델로 기획해 보는 1박 2일 실전형 과정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생겨난 지역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찾아내 사회연대경제 관점의 사업으로 풀어보며, 문제해결 능력과 사업기획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순창발효테마파크 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며,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지역 문제 발굴, 아이템 구체화, 고객 정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 등 사업기획 전 과정을 1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고, 마지막 날 모의 사업계획 발표를 진행한다. 교육 기간에는 로컬·소셜 임팩트 분야 전문가가 팀별 1:1 코칭을 맡는다.

교육비와 숙박, 식사는 모두 무료이며, 과정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 문제 해결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대학생으로, 순창군 거주자는 만 49세 이하, 관외 거주자는 만 39세 이하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최대 15명으로, 최종 교육 대상자에게는 12월 4일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서 전국 대학태권도대회…2500명 참가

대한민국 대학 태권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9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품새·격파·경연 전국대학태권도대회'와 '제47회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 선수권대회'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과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연합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대회로, 전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함께 동아리 활동으로 태권도를 즐기는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마련됐다.

대회는 양 단체와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남원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남원시체육회가 후원한다.

대회에는 전국 대학 태권도 선수 등 총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품새·격파·경연'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태권도의 절도 있는 동작과 역동적인 기술, 창의적인 표현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는 7일 겨루기 개인전 및 공인품새 경기를 시작으로 대회 3일 차인 9일에는 자유품새, 태권체조·태권경연, 종합격파 및 회전·도약격파 경기가 펼쳐지고,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공인품새 단체전·복식전, 5인조 단체전이 대회의 화려한 막을 장식한다.

주요 경기 관람시간은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심에 답하다'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

완주군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농업인 500여 명이 함께하는 '제3회 완주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연다.

'완주, 농심(農心)에 답하다'를 주제로 내건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땀 흘린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완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1월 11일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인 11월 11일은 한자 '십(十)'과 '일(一)'을 합쳐 '흙 토(土)'를 나타내는 것으로, 농업의 근간인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소개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힘쓴 유공자 표창과 완주군 농업인 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농업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도 마련한다.

특히 '완주 농업비전 토크콘서트'를 열어 유희태 완주군수와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이 농업인들과 마주 앉아 농정 비전과 현안을 논의한다. 생생한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완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승용형 농기계 자율조향 기술 현장 실증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2023년부터 승용형 농기계 자율조향장치의 실증과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양파 이식기와 피복기에 장치를 부착한 현장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진=남원시>

자율조향장치는 기존 트랙터 등에 부착하면 미리 설정한 경로를 ±7㎝ 수준의 오차로 스스로 직진·조향해 운전자는 핸들 조작 부담을 덜고 작업기와 주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은 2023년 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먼저 확인했다. 자율조향장치를 활용한 결과 관행 농작업과 비교해 작업 가능 면적이 약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업 경로가 일정해지면서 중복 작업과 빈 구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는 이듬해인 2024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을 추진해 승용형 농기계를 보유한 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 조직 등의 트랙터에 장치를 부착하고 비닐 피복 작업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사업 과정에서는 사전 교육, 평가회를 함께 진행했다.

올해는 남원 지역의 주요 밭작물인 양파 재배에 초점을 맞춰, 자율조향장치를 양파 이식기와 피복기에 부착하고 비닐 피복부터 정식까지 이어지는 작업에 적용하였다. 피복과 이식 작업은 두둑과 줄 간격의 직진성이 수확량과 이후 관리 작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자율조향 기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시범현장을 농업인에게 공개하여 자율주행 농기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스마트 농기계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줄이고, 실제 활용 의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여성단체협의회,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명자)는 지난 2일 금과면과 팔덕면을 시작으로 관내 11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군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성평등 교육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일상 속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11개 읍·면별 경로당 1개소씩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문강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비롯해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한 생활문화 등이다. 특히 PPT 자료와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교육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명자 회장은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수도권 관광객 '에코레일열차' 투어 성료

완주군이 여행공방과 손잡고 수도권 관광객을 겨냥해 선보인 '에코레일열차' 테마 여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투어에는 일반 관광객 127명과 자전거 동호인 90명 등 총 217명이 참여해 서울에서 완주까지 갈아타는 불편 없이 한 번에 닿는 기차여행의 여유를 누리며 늦가을 완주의 정취를 만끽했다.

에코레일열차는 자전거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철도 관광 상품으로, 이번 투어는 교통 정체나 복잡한 환승 없이 수도권에서 완주까지 곧바로 도착할 수 있어 탑승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완주에 도착한 90명의 자전거 체류객들은 기차에 싣고 온 자신의 자전거로 만경강 자전거길을 누볐다.

또한 일반 체류객들은 삼례문화예술촌, 대아수목원 등 주요 거점과 로컬 맛집을 방문하며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이 교차하는 특색 있는 풍경을 경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에코레일열차를 통해 수도권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완주까지 한 번에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접근성을 높인 철도 연계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쉽게 완주의 매력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체력인증센터, 기관 협력 지역주민 건강증진 '앞장'

국민체력100 남원체력인증센터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현장 활동과 유관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력관리기관으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체력측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으로 찾아가는 출장 체력측정을 운영하며 체력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 29일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 열린 '2026년 남원시 어르신스포츠걷기대회'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소 어르신 67명을 대상으로 혈압·신체조성 검사와 악력, 보행 등 체력측정을 실시했다.

또 남원시보건소와 협력해 비만관리프로그램 참여자 12명과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132명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마을 돌봄의 날'과 연계해 어르신·장애인 등 7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남원체력인증센터는 남원시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관리 서비스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문화재단, 장애인 예술교육 결과공유 상영회 개최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완주 휴시네마 1관에서 '2026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공유 상영회 '이야기가 모이는 곳 : 우리의 노래'를 개최한다.

상영회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참여자들의 예술 활동을 담은 영상을 함께 관람하고, 사업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참여자들의 모습과 활동을 기록한 영상을 통해 예술이 일상에 가져온 변화와 서로 연결되는 경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문화관광재단 정철우 상임이사는 "이번 상영회가 참여자들에게는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는 뜻깊은 추억이 되고, 관람객들에게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몸·마음 돌보는 맞춤형 복지 행보

무주군, 어르신 마술쇼·웃음 치료

통합 건강 복지 활동 추진

무주군은 4일 무주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건강한 식생활의 행복한 웃음, 나눔의 마술쇼와 웃음 치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천면 사람애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품위생·영양 관리와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 섭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방법 등이 전달됐으며, 마술 공연 등 '웃음 치료'를 통한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통합적 건강 복지 활동이 추진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지역 내 소규모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군은 이들과 함께 식생활 안전 종합지도·감독을 비롯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고독사 위험군 집 밖 활동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앞장

진안군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은둔형 대상자가 일상 속에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집 밖 지지 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며, 고독사 위험군 20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외부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은 단순한 외출 지원을 넘어, 참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반려식물 제작 △건강체조 △아로마테라피 △요리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참여자의 안부 확인과 함께 외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과정에서 건강·정서·생활상의 어려움이 확인되면 전문상담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는 진안군사회복지센터 1층 무인카페 '카페 늘봄'을 운영하며, 주민이 부담 없이 들러 쉬고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카페 늘봄은 휴식·힐링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고립 예방, 관계 형성, 힐링 체험 및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은 '2026년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백운면 이경인 농가가 출품한 한우가 번식암소 1부문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진안군>

진안 한우, 첫 전국한우경진대회 입상

백운면 이경인 농가 '전국 3위'

진안 한우가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사상 첫 입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며 지역 한우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진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농협안성팜랜드 아그리움에서 열린 '2026년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백운면 이경인 농가가 출품한 한우가 번식암소 1부문 장려상인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진안군 농가가 전국한우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각지의 우수 한우가 경쟁하는 무대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진안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한우 개량의 가능성을 보여준 값진 결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각 도를 대표하는 우수 한우를 비교·평가하고 한우 개량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다. 암송아지, 미경산우, 번식암소 1·2·3부의 생축심사 5개 부문과 유전체 유전능력 1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경인 농가가 출전한 번식암소 1부문은 36개월령 미만이면서 한 차례 이상 출산한 암소를 대상으로 한다. 각 도에서 선발된 우수 한우 10두가 경쟁하는 부문으로, 진안 출품우는 장려상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진안 한우가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남게 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군민 체감 기본사회 실현 '속도'

실무추진단 2차 회의 개최
2027년 시행계획 수립 본격화

진안군은 4일 군청 강당에서 이경영 부군수를 주재로 '2026년 진안군 기본사회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 기본사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발굴한 13개 부문, 72개 과제를 보고받고 부문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28일 시달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추진 가이드'에 따라 2027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부군수와 17개 부서장, 44개 팀장 등 실무추진단 62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13일 1차 회의 이후 각 부서가 발굴한 과제를 부문별 총괄팀장 및 과제별 담당 팀장이 보고하고, 부군수가 부문별, 과제별 보완 및 수정사항 추가 발굴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군민 수요에 근거한 과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 부서 간 협업, 성과지표로 확인 가능한 실행계획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과제를 이행·확장·신규·융합 4개 유형으로 나눠 정리했다. 유형별로는 이행 51건, 확장 8건, 신규 9건, 융합 4건이다.

이행 과제는 가이드에 따라 군 소관 사무를 충실히 추진하는 과제로, 임업직불제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돌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등이 해당한다.

확장 과제는 기존 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방식을 개선해 체감도를 높이는 과제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과 진안형 'AI 평생학습도시'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혼인지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 자체적으로 새로 발굴한 신규 과제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농촌유학 활성화사업, 금융·복지 연계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두 개 이상 부서가 함께 추진하는 융합 과제에는 지역 공급망과 연계한 농번기 공동급식 개선, 임대주택 공급, 댐 주변 지역 친환경 사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군수는 회의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넘는 협업과 군민이 체감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군수 결재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출 이후에도 2027년 상반기까지는 과제를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은 분기별로 부군수 주재 보고회를 열어 부문별 추진상황과 협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제43회 노인대학 어르신 107명 수료식

장수군은 지난 3일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지회장 허기태) 부설 노인대학이 제43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노인대학생 107명과 최훈식 군수, 정상득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지회 임원 등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을 축하했다.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수료증 및 상장 수여 △격려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어르신들의 꾸준한 노력과 성취를 함께 나누고, 배움을 통해 이어온 도전과 성장을 격려했다. 특히 성실하게 출석한 수료생 8명에게 개근상을 수여했으며, 천천면 반장으로서 성실한 학업 태도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준 서문덕순 수료생에게 모범상을 전달했다.

장수군은 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이 배움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동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농업인 안전실천 경진대회 '우수상'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 성과
여름철 폭염 취약 농업인 대상
현장 중심 안전관리 활동 펼쳐

장수군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6년 농업인 안전실천 경진대회'에서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작업 재해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온열질환 예방요원 8명을 운영하며 고령농업인과 폭염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예찰, 온열질환 예방교육, 안전수칙 홍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예방요원들은 농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자제 등 폭염 대응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작업 중에도 안전수칙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안내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수상은 무더운 날씨에도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온열질환 예방요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맞춤형 난임 지원사업 적극 추진

임실군보건의료원은 난임 대상자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맞춤형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며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대상자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한의약 치료로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침구·뜸 치료 후 2개월간경과 관리를 받게 되며,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지원사업'은 항암치료나 유전질환 등으로 불임이 우려되는 군민이 사전에 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할 수 있도록 정자 동결은 최대 30만원, 난자 동결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 난임 지원사업'은 남성 요인 난임 진단을 받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회(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공무원 대상 생성형 AI 활용 교육

행정업무 활용 능력 강화

무주군은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공무원 대상 "생성형 AI 활용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이번 교육에는 군청을 비롯한 6개 읍면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여해 행정 실무 역량을 키운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우람 강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및 업무 자료 생성, △업무 유형별 프롬프트 작성 및 활용, △자료 분석 및 업무 효율화 실습, △업무 자동화 기초, △보안 ·윤리·공직자 역할 등을 공유하게 된다.

무주군은 지난 4월과 7월에도 AI 활용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재난 대응 '빈틈없이'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임실군이 최근 신설한 '재난상황팀'을 중심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대형 복합 재난에 대비해, 야간 및 휴일에도 공백 없는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군 재난상황팀은 올해 1월, 분산되어 있던 재난 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신설된 조직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PS-LTE 단말기 조작법 숙지, 상황 보고 및 전파 체계 점검 및 예·경보 시스템 연동: 통합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파하는 연계 프로세스 학습 등을 교육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

계고장 발송 마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본격화
법령 따른 행정처분 병행 추진

임실군이 하천과 계곡 구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기존에 계고장을 발송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관내 하천 전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 처분과 함께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진 철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가설 천막을 비롯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무단 적치물 등 계고 처분을 받고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철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군은 11월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미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행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정비가 완료된 지역 중 재발 위험이 높은 곳에는 방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는 등 복구와 재발 방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사전 계고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 기회를 안내해 드린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불법 건축물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하천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임실군을 위해 소유주분들께서 자진 철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전춘성 군수 MOU 체결국 방문
라오스·필리핀과 협력 강화

진안군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MOU 체결국인 라오스와 필리핀 마갈레스시를 방문해 간담회 및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적기 일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지에서 우수 인력을 직접 선발·도입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함께 운영 중인 김연태 백운농협 조합장, 김영배 부귀농협 조합장, 조성철 진안농협 상임이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장 개설 지원 등에 힘쓰고 있는 한정호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장이 함께 동행했다.

군은 지난달 10월 30일 라오스를 방문해 2025년에 MOU를 체결하고 2026년 첫 도입한 4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농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성실한 근로자 파견에 대해 노동사회복지부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2027년 선발 절차 개선 및 도입 규모 확대 등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1일 필리핀 마갈레스시로 이동해 이주사회노동부(DMW)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진안군은 지난 4년간 이어온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방지 대책 등에 관해 깊이 논의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부안 주산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류천수 회장, 고향사랑기부

부안군은 주산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류천수 회장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부안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나눔으로 전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졌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의 기부 참여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고향사랑 나눔문화 확산에도 의미를 더했다.

류천수 회장은 "부안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변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어르신 복지, 청년 주거 지원, 아이돌봄, 생태환경 보전 등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ESG기부 캠페인

전직원 참여해 생활용품 등 200여점 기부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임직원과 함께하는 ESG 실천 "RE-USE" 캠페인을 추진하고, 모아진 기부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동안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며, 의류 150여점과 생활용품 20여점 등이 모였다. 수집된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한편,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공단은 그동안 친환경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ESG 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ESG 실천 "RE-USE" 캠페인을 추진하고, 모아진 기부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완주군시설관리공단>



군산 미성동 지사협 어르신 지역 탐방 사업 성료

군산시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2026년 신규 특화사업인 '어르신 지역 탐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허브화기금으로 추진됐으며, 평소 야외활동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들과 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군산 선유도 일원을 방문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며 편안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선유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둘러보고 유람선 탑승 체험을 즐겼으며, 식사를 함께하며 일상과 안부를 나누는 등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배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과 가을 풍경을 즐기며 웃음과 담소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온기를 더할 수 있는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 사랑의 김장 나눔

김장김치 120박스 전달

무주군은 지난 3일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가 '사랑의 김장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원 등 1백여 명은 무주반딧불시장 원형 광장에서 배추 1천 포기 다듬기부터 절이기, 양념 준비, 김장 버무리기와 포장까지 함께했다.

상인들이 담근 김장김치는 총 120박스에 담겨 6개 읍면 어려운 이웃 가정에 전달됐다. 김치 배달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박용식 상인회장은 "생업으로 바쁘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봉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게 회원들의 마음"이라며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게 하는 따듯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 강진면 지사협 관내경로당 25개소에 팥죽 전달

임실군 강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오전 9시 강진풍물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온(溫)마을 팥죽 한 그릇, 마음 10한 그릇' 팥죽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자원봉사자 25명이 참여해 정성껏 팥죽을 직접 만들고, 완성된 팥죽을 관내 경로당 25개소에 협의체 위원과 복지이장이 직접 전달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팥죽을 소분용기에 담아 가정까지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돌봄을 실천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에 반찬 전달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는 4일 센터 빵굽터실에서 대한적십자장수지구협의회와 함께 온기나누기 두 번째 캠페인인 '반찬 및 부식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돼지고기 주물럭, 꽈리고추 메추리알 장조림, 오징어젓갈 등 반찬과 계란, 김, 꽁치통조림, 사골곰탕을 포함한 총 7종의 꾸러미를 정성껏 준비했다. 이어 장수군 내 취약계층 100세대를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센터는 첫 번째 캠페인인 '건강 음식 고추장 나눔'에 이어 이번 행사를 추진했으며, 세 번째 캠페인으로 겨울철 추위에 대비한 '방한 물품 나눔'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실버카 지원

거동 불편 어르신 19명 대상

김제시는 지난 3일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KBS강태원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19명에게 실버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르신 실버카 지원사업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외부활동을 지원해 일상생활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노기보 관장은 "이번 실버카 지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일상 속 외부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읍 이평면 주민들 직접 담근 고추장 400개 나눔

정읍시 이평면 주민과 마을복지활동가들이 고추장 400개를 직접 담가 이웃 나눔과 돌봄을 실천했다. 시는 지난 3일 이평면 대동마을 일원에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열었다.

주민제안형 지역활력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주민들이 기획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주민과 활동가들은 함께 만든 고추장을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했다. 고추장을 담그고 나누는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도 넓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활력사업을 통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一事一言〉



미소로 나누는 작별… '생전 장례식'이 던지는 삶의 울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추모를 넘어 삶의 끝자락에서 당사자와 함께 나누는 축제

장례식장하면 흔히 떠오르는 풍경은 국화꽃 향기 속에 흐느끼는 통곡 소리와 영정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는 조문객들의 어두운 표정이다. 전통적인 장례는 남은 이들이 먼저 떠난 자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숭고한 추모의 자리다. 그러나 이 엄숙한 의식 속에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결핍이 존재한다. 그 모든 슬픔과 추억 이야기의 주인공이어야 할 '고인'이 정작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살아있는 동안 고마웠던 마음, 미안했던 기억, 함께 나눴던 웃음을 고인이 직접 듣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슬픔은 오롯이 남겨진 자들의 몫으로만 그치게 된다. 정작 인생의 주인공은 부재한 채 일방적인 애도만 이뤄지는 현실이다.

최근 1929년생인 96세 신영주 어르신이 가족과 이웃 60여 명을 초대해 개최한 생전 장례식, 이른바 '안녕 파티' 소식은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기성 관념에 경종을 울리며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이 특별한 안녕 파티에는 어두운 영정사진도, 눈물의 조가도 없었다. 대신 주인공 어르신이 직접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에 앉았고,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따뜻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젊은 시절의 흑백사진부터 최근의 일상 사진까지 함께 보며 살아온 날들을 되짚고, 옛 추억과 수다를 나누는 현장은 슬픔의 의식이 아닌 생애 전반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였다. "언제가 제일 좋아?"라는 물음에 다 함께 "지금!"이라고 외치는 모습은, 죽음을 개인이나 가족의 묵직한 짐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안아주는 차원 높은 '웰다잉(Well-dying)'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96세 어르신 '안녕 파티'가 보여준 웰다잉과 존엄 회복의 새 가능성

우리는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장례 문화는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상업화되어 당사자의 의사나 진정한 이별의 의미보다는 남들의 시선과 절차에 매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가 온전한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고 미련 없이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존엄한 권리일지도 모른다. 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침표를 찍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물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상장례의 가치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애도와 격식은 남겨진 이들의 위안을 위해 여전히 소중하며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죽음을 한없이 무겁고 회피해야 할 금기어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이자 또 다른 완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유명인들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보통의 시민들도 마을과 지역사회 안에서 소박하게 생전 장례를 치르며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토대가 다져져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웰다잉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전 장례 문화나 유언장 작성,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행정적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죽은 자를 추모하는 눈물도 가치 있지만, 살아있는 당사자와 함께 웃으며 삶을 회상하는 기억은 더욱 눈부시다. 96세 어르신이 던진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화두처럼, 이제 우리 사회도 '고인 없는 슬픔'을 넘어 '당사자와 함께하는 존엄한 축복'으로 장례의 패러다임을 넓혀가야 할 때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쓰고 고마운 이들에게 미소로 안녕을 고하는 문화가 전북 지역사회 전반으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한다.

사 설

전북 국가예산 증액, 국회·정부 협력에 기대 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0조 원대 국가예산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핵심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10조 2,349억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피지컬AI와 새만금 개발 등 일부 핵심사업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이원택 도지사가 직접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로 뛰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가예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다. 특히 피지컬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새만금 개발, 상용차 산업 전환 등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핵심사업이다. 지금 필요한 투자가 제때 이뤄져야 전북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이제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한다. 국가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공동 대응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의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의 성장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전북도 또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사업별 타당성과 시급성을 더욱 치밀하게 제시해야 한다.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집행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전북도의 발품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값진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길 응원한다.

▲오늘의 시

두 사람 / 곽 재 규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꽃길을 지나갑니다.
바퀴살에 걸린
꽃 향기들이 길 위에
떨어져 반짝입니다.

나 그들을
가만히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아는 하늘의 길 하나
그들에게 일러 주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러 놓고 그들의 눈빛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그들이
알고 있을 것만 같아서
불러서 세워 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1992년 제10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 명예교수를 지냈다.

| 독자투고 |

일상을 무너뜨리는 비극,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범죄



어느덧 일상 속에서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거나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이다.",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라는 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설마 내가 속겠어?"라며 방심하는 이들을 목격한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상의 사기가 아니라 타인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경찰청, 금융권, 금감원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며 우리 사회의 무거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신종 IT 기술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조종한다는 점에 있다.

누군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의 무책임한 범죄 조직의 수작으로 인해 날아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자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고,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즉시 끊는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삭제하고, 의심되는 통화 시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확인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예방 문화와 경각심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1팀
순경 김병후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피지컬AI·반도체부터 교통·문화까지

'익산 대전환 본격'

최정호 익산시장 민선 9기 출범 100일
주요 추진 경과와 중장기 발전 구상 제시
시민 소통과 기업 친화 행정 강화
교통·산업·문화 등 도시 전반 대전환

민선 9기 익산시가 '익산 대전환'을 위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민선 9기 출범 100일간의 주요 성과와 익산의 미래를 이끌 중장기 발전 구상을 최근 밝혔다.

시는 지난 100일 동안 '익산 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를 시정 목표로 정하고 5대 시정방침에 따라 분야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9개 민관협력 협의체를 가동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점 과제를 실행하고,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과 시정 혁신을 추진해 익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편집자 주〉



◆ 공모사업·대규모 국가사업 등 결실 맺어…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는 산업·문화·의료 등 주요 분야의 공모사업과 국가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먼저 반도체 소재·화학 분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2027년 문화의 달 행사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산업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실증·생산이 연계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문화의 달 행사는 익산역과 원도심 등 지역 문화 자원을 전국적인 문화 행사와 연결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전북권 산재전문병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27년 정부예산안에는 익산시 국가예산 1조 24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정부 정책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과 중앙부처·국회·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시민과 소통하고 기업과 동행…열린 행정 실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고 기업의 어려움은 현장에서 풀어가는 소통 중심의 행정 방식도 민선 9기의 주요 변화다.

시는 '타운홀미팅'을 현장 참여와 생중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걸어서 시민 속으로'와 '열린시장실'을 통해 시민을 직접 만나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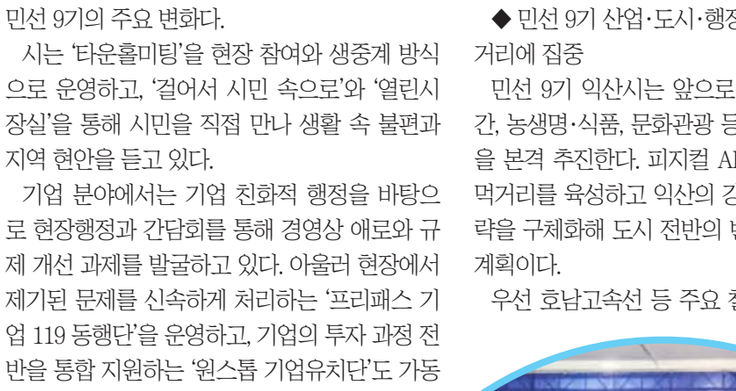
기업 분야에서는 기업 친화적 행정을 바탕으로 현장행정과 간담회를 통해 경영상 애로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프리패스 기업 119 동행단'을 운영하고, 기업의 투자 과정 전반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유치단'도 가동하고 있다.

◆ 재정·익산역과 원도심·피지컬AI·로컬푸드…민관협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

시는 시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는 9개 민관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은 관행적·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여 민생과 미래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익산역 및 원도심 소생 추진단'은 익산역과 중앙동의 상권·문화·관광·청년 기능을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다함께 미래로 피지컬 AI 추진단'은 식품·농생명·농기계·바이오 등 지역 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산업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로컬푸드 시민이음 협의체'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또 △익산 스포츠 리본(Re:Born) 협의회 △익산 K-컬쳐 허브 추진단 △함께 그린(green) 익산 협의체 △미래산업 대전환 기업유치 추진단 △청년친화도시 추진단을 운영해 스포츠·문화관광·환경·기업유치·청년 분야의 현안을 살피고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 민선 9기 산업·도시·행정의 변화로 미래 먹거리에 집중

민선 9기 익산시는 앞으로 산업·교통·도시공간, 농생명·식품, 문화관광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피지컬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익산의 강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도시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호남고속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만나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북권 광역철도와 새만금 연결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광역교통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의 강점을 바탕으로 익산을 새만금 배후도시로 육성한다.

'익산역 중심 복합 거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익산역과 중앙동·대학로 등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시공간 발전 방향도 구체화한다. 환승·산업·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경제권을 형성해 익산을 대한민국 서남부권 교통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력산업인 식품·농기계·바이오 분야에는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하고 정부의 피지컬 AI 전략과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익산의 산업 여건에 맞는 AI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업 발굴과 이동로봇 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해 미래첨단 피지컬 AI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여건의 강점을 살려 관련 기업의 투자와 전문인력의 지역 정착을 이끌어낸다.

특히 용수와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 기업의 입주와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연구개발·실증·생산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익산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반도체 도시로 조성한다.

농생명·식품 분야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과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푸드테크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생산·창업·수출을 연계해 바이오·농식품 융복합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주얼리 분야는 오랜 산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 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연구개발과 디자인, 인력 양성, 마케팅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K-주얼리 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익산만의 관광 콘텐츠와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권역별 대표 명소를 조성해 국가대표급 브랜드 도시로 도약한다.

또한 민선 9기 시정 목표와 시정방침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역량을 집중한다.

◆ 친절과 적극행정을 최우선으로…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

시는 취임 100일을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으로 삼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시민 생활과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시민과 기업에 대한 친절과 적극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경청과 배려를 바탕으로 민원에 응대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알기 쉽게 안내하며,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에는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지난 100일의 변화는 전임 시장님들과 공직자들이 다져온 기반에 27만 시민의 성원과 이춘석·한병도 국회의원,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더해져 가능했다"며 "익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이 가진 교통과 산업, 농생명·식품의 강점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직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익산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사람이 찾는 지역,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